

원자재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취재/이영오 기자

축산물 시장에 개방바람이 거세게 불어다치면서 축산업은 풍전등화를 연상케할 만큼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90년초부터 정부의 부양책이 나오면서 집중 육성된 계열화 사업은 현시점에서 볼 때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정기조가 어느정도 마련되지 않았느냐 하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3억 5천만수의 닭이 생산, 소비되고 있는데 하루평균 백만수 가량의 닭이 소비된다고 볼 수 있다.

이중 전체 생산량의 40% 정도를 계열농가에서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

방화 시대에 육계산업의 생존을 위해 계열화 사업은 하나의 대안이란 점에서 참여농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하상리에서 7만수 규모로 육계업을 경영하는 반명수(명성농장) 사장은 지난 '93년부터 풀그린 식품과 계약사육을 하면서 계열화에 참여하게 되었다.

5회전을 기준으로 사료, 약품, 연료비, 평균중량 1.50kg 육성을 95%, 사료요구율 2.0에 준하여 kg당 120~140원의 수수료를 주는데 초생초 효율, 사료효율 등을 참고로 농가의 사양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9년째 육계업에 종사하고

있는 반사장은 처음 1만수로 육계업을 시작할 때 병아리 구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일, 가격이 폭락해 닭을 처분하지도 못해 애태우던 일들을 생각하며 회상에 젖기도 한다.

7만수 농장으로 발전해오기까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사양관리 방식에 특징이 있다.

개방식 계사 전면에 지름 20cm인 주름관 9개를 설치, 입기구로 활용하고 7개 계사 모두가 터널식으로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명성농장은 건평 200평의 계사 7개동으로 200m를 사이에 두고 4개동 3개동으로 나누어져 all in all out체제를



반명수 사장
7만수를 계약사육하고 있는 명성농장

구축하고 최대한 오염원을 차단시키고 있으며 계사가 언덕에 위치해 신선한 공기가 계사내부로 자연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약품비와 깔짚비용은 분회가 관리 공동 구매해 저렴한 가격으로 왕겨를 구입, 활용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한 계분은 전량 계분 업자가 수거해가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개방화 시대를 맞아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계열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명수 사장은 성적에 따라 상응하는 댓가를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으로 커가기 위해선 병아리, 사료 등 기본 원자재를 지장없이 공급해주는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진천지역은 소비자의 특성에 맞게 1.5kg에 출하하고 있

다.

계약사육의 문제점으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이 병아리, 사료, 수수료 정산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약추발생시 1주일 이내에 폐사율이 0.5% 이상날

때, 1일 폐사율이 0.3% 이상 날때 수수를 공제해 주게 되는데 계열업체에서 배려해 주는 편이어서 그나마 위안이 된다. 문제는 규모가 대형화 되면서 폐사계 처리문제가 농가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병아리를 일반 농가처럼 병아리의 상태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열업체에서 보다 철저한 중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한다. 작년의 경우 연 4회전밖에 시키지 못해 소득이 일반농가만 못했다는 주장이다.

표1. '94년과 '95년 사양실적과 사육비 비교

○사양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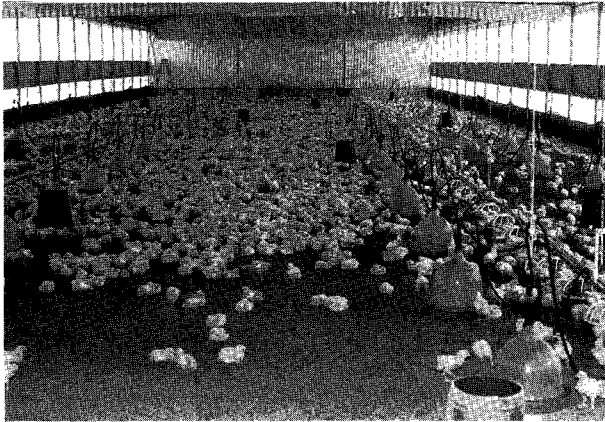
사육기간:95. 2. 6~95. 3. 15

입 추 수 수	40,000수(36,000수)	출 하 수 수	37,140수(34,610)
사 육 일 수	37일 (35일)	육 성 율	95% (96.14%)
출하총물량	51,740kg(58,150)	사료총중량	95,260kg(53,150)
평균 체 중	1.39kg (1.54)	사료요구율	2.00 (2.01)

○사육비

사 육 수 수 료	51,740(kg) (53,150)	140(135)	7,243,600원(7,003,900)
약 품 대	37,140(수) (34,610)	40(40)	1,485,600원(1,384,400)
연 료 대	37,140(수) (34,610)	90(95)	3,342,600원(3,287,950)
초생추효율수당	0 (410)	0(250)	0 (102,500)
사료효율수당	8,220(4,558)	230(240)	1,890,600원(1,093,992)
깔 짚 수 당	37,140(34,610)	10(10)	371,400원(346,100)
상 차 비 공 제	14(12)	10,000원(100,000원)	140,000원(120,000원)
계			14,473,800원(13,098,842)

* () 94. 1. 10~94. 2. 15일까지 사육 성적



◀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본원자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이는 각 농가마다 생산성에서 차이가 나겠지만 지난해 명성농장이 40,000수를 입추해 육성을 95%인 37,140수 출하해 14,473,800원을 소득을 올렸다면 4만수 규모의 일반농가에서 생산비를 987원으로 잡고 명성농장과 같은 성적을 올렸다면 출하시 kg당 가격이 1,300원인 것을 감안할 때 16,194,620원의 소득을 낸다는 이야기가 되므로 1회 전당 1,720,820원의 차이가 생긴다. 여기에 4회전을 했다면 일반사육농가가 6,883,280원을 더 이득을 보는 셈이다.

그러나 '93년 2월 평균가격이 생산비 이하인 881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계약농가의 소득이 훨씬 많게 된다.

계열주체와 농가간에는 상반된 경제적 입장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개연성은 상존하고

있다.

막연하게 계열화 체계가 정착되면 안정된 직업이 보장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개방화 시대를 맞아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전제하고 계열업체, 농가가 협력해 안정적인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가격의 폭락으로 업체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때 사료품질의 질을 떨어뜨려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나 약속된 날짜에 닭을 출하하지 않는 일, 그리고 출하 후 빠른 시일 내에 결제가 되어야 하는데 결제일이 지연되거나 어음으로 결제하는 사례도 있어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계약농가도 소극적 대처보

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강구된다. 진천육계분회의 회장이기도 한 반사장은 분회를 중심으로 한달에 한번씩 월례회의를 갖고 질병, 사양관리, 입추시기, 개선점 등 현안문제를 파악, 계열업체인 풀그린 식품에 알리고 또 계열업체의 어려움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서로 발전을 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어 육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계열화사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선 기본원자재의 원활한 공급과 대금결제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계약사육농가들의 주장이다.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선 업체와 농가의 이해가 필요하고 이에따른 제반규정이 만들어져 신뢰감이 쌓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도 계열화사업을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현추이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개방화 시대에 우리 육계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계